

EU 탄소규제에 전기차 인기…캐스퍼 EV 흥행 날개다나

1~4월 전기차 76만대 판매…캐스퍼 4월 EU 수출 첫 2000대 넘어서

올해 들어 시작된 탄소규제 영향으로 유럽연합(EU) 내 전기차 판매량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소형 전기 SUV ‘캐스퍼 일렉트릭’ 수출에도 호재가 되고 있다.

26일 현대차에 따르면 캐스퍼 일렉트릭은 지난 1월 유럽에서 868대가 팔린 데 이어 2월 1694대, 3월 1956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월 판매량 2000대를 넘어서는 등 흥행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지난해 12월 ‘인스타’라는 이름으로 유럽 판매를 시작했으며,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특정 모델은 최대 2년 가까이 출고 대기를 해야 할 정도로 인기를 이룰 하고 있다.

올해 1~4월 EU 내 다른 전기차 판매량 역시 크게 늘어난 모습이다.

자동차 시장조사업체 데이터포스 통계를 인용한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4월 EU 내 전기차 판매량은 75만

9325대로 작년 동기 대비 27.5% 늘었다. 같은 기간 EU 자동차 판매량이 0.3% 감소한 447만 737대로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전기차의 판매량은 높게 증가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을 뛰어넘는 이러한 판매 증가는 EU가 올해부터 시행한 탄소 규제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올해부터 신규 승용차의 CO₂ 배출 가능 상한선을 2021년보다 15%가량 낮은 km당 93.6 g으로 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면 목표 달성이 미흡한 것으로 간주해 g당 95유로(한화 14만 7000여원)씩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집행위는 업체들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달 ‘2025~2027년엔 신차의 CO₂ 배출 감축량 목표 달성 여부를 연간 단위가 아닌 3년 평균치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채택하며 규제를 완화했다. 일부 규제가 완화됐지만 이미 시행된 탄소 규제로 소비자들이 전기차에 관심을 갖게 됐다

는 해석이 나온다.

전기차와 더불어 EU 내 PHEV 판매량도 늘고 있다.

올해 1~4월 EU 내 PHEV 판매량은 36만 6612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5% 늘어났다. PHEV 판매 증가에는 상계관세로 전기차 수출이 막힌 BYD 등 중국 업체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앞서 EU 집행위는 “중국 당국의 ‘불공정한’ 보조금을 받은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며 기존 10% 일반관세에 더해 7.8~35.3%p의 추가 상계관세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이 최소 17.8%에서 최고 45.3%로 올랐다. BYD, 지리, 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업체들이 내연기관과 전기모터가 결합돼 상계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PHEV 출시에 집중했고, 이는 판매량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오토모티브뉴스는 “전기차와 중국 브랜드가 유럽 자동차 신차 시장의 지형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기아 EV3,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 최고 등급

정면·측면 충돌 테스트 등 우수

기아는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가 유럽 신차 안전성 평가 프로그램인 ‘유로 NCAP’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EV3는 충돌 상황에서 승객 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해 탑승자를 보호하고 운전자 상태 모니터링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 사양이 탑재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평가 항목은 성인 탑승자 보호, 어린이 탑승자 보호, 보행자 보호, 안전 보조 시스템 등 총 4개 항목이다.

유로 NCAP 측은 EV3가 정면·측면 충돌 테스

트에서 승객 공간이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 모든 탑승자의 주요 신체를 잘 보호했다고 평가했다.

또 EV3에 운전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과 사고 발생 시 긴급 구난 센터에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이 탑재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단 이번 평가는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고속도로 주행 보조2(HDA2)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사양이 포함된 ‘드라이브와이즈 ADAS 팩’이 적용된 차량을 대상으로 했다.

유로 NCAP 테스트는 1997년부터 시작된 유럽의 신차 평가 프로그램으로 유럽에서 판매 중인 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 테스트를 실시해 매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해나 기자 khn@

“미래 인재 육성”…현대차 미래모빌리티학교 참가 모집

6월 20일까지 접수

현대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미래모빌리티학교’ 2025년 2학기 참가 학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6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미래모빌리티학교는 현대자동차가 민간기업 최초로 교육부와 협업을 진행하는 학생 주도 활동형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이 모빌리티 산업 발전 과정과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혁신적 기술을 학습하며 미래 모빌리티를 선도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국내·재외한국 학교에서 진행되는 미래모빌리티학교는 초등학교 4~6학년 대상의 ‘미래 모빌리티가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 라이프’ 프로그램과 중등 단계 프로그램인 ‘스마트 모빌리티 중심으로의 진화’, 중등 정규 프로그램인 ‘모빌리티와 함께하는 미래 라이프 스타일’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로 10년을 맞은 미래모빌리티학교는 전 세계 2720개 학교, 11만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대상 국가를 기존 5개국(한국·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캄보디아)에서 중국·베트남·라오스·필리핀을 추가해 9개국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현대자동차는 이론 전달 위주의 전통적 수업 방

식이 아닌 자율주행 모빌리티 키트, 모빌리티 업사이클링 키트, 미래 라이프 스타일 기획서 등의 활동으로 학생들이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학기에는 교육 자료를 개편해 수소 에너지와 스마트 모빌리티를 주제로 미래 모빌리티 환경 변화까지 추가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미래모빌리티학교는 성장 세대가 차세대 모빌리티 산업을 쉽게 이해하고 이를 계기로 진로를 넓게 모색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키우고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극강 올라운더…포르쉐,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 GTS’ 출시

포르쉐코리아는 “순수 전기 스포츠카 ‘타이칸 GTS’를 국내에 공식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신형 타이칸 GTS는 런치 컨트롤을 작동하면 최대 515kW(700마력)의 오버부스트 출력을 발휘하고 ‘푸시 투 패스’ 기능을 활용하면 최대 70kW를 추가로 10초간 낼 수 있다. 정지 상태에서 지속 100km까지 가속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기존보다 0.4초 더 빠른 3.3초다.

선택사양으로 제공되는 포르쉐 액티브 라이드는 각 바퀴에 하중 분배를 최적화해 탁월한 접지력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한다.

포르쉐코리아는 외관 디자인은 블랙 혹은 앤티러사이트 그레이 컬러 디테일을 통해 GTS 모델 특유의 감성을 연출했다.



포르쉐코리아는 “GTS는 1963년 공개된 포르쉐 904 카레라 GTS 이후 브랜드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모델로 자리매김했다”며 “타이칸 GTS는 타이

칸 제품군 내에서 주행 성능과 일상 활용성을 모두 만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글로벌 자동차 시장 1분기 성장세 뚜렷

중국 11.1%↑·증가분 75% 차지…미 관세에 2분기 하락 전망도

지난 1분기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친환경차 시장도 지속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미국의 관세 정책이 경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호 한국자동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26일 발표한 ‘최근 자동차 시장 현황 및 주요 이슈’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 세계(59개국) 완성차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4.6% 오른 2217만 4000대로 조사됐다.

중국이 11.1% 증가한 746만 7000대로 시장 1위에 올랐다. 미국(3.3% ↑·402만 6000대)·인도(2.2% ↑·143만 5000대)·일본(13.6% ↑·128만 3000대)이 뒤를 이었다.

이 책임연구원은 “최근 세계 자동차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과거 성장 경로의 복귀가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주로 중국·미국에서 기인한 것인데, 특히 중국은 1분기 전 세계 판매량 증가분 중 75%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완성차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오른 38만 8000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판매량이 6.4% 줄어든 점을 볼 때 시장이 안정화되는 모습이라는 분석이다.

이 책임연구원은 “국내 주요 기관들은 내수 경기 침체로 지연된 소비가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 연장, 노후 자동차 교체 등 정책 지원으로 자극된 결과로 해석한다”면서도 “연구원 자체 전망에서(국내) 판매량은 4월 이후 부진할 것으로 추정돼 올해 남은 기간 판매량 성장세가 이어지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1분기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우려에도 전기차(B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BEV는 38.5% 늘어난 280만 9000대, PHEV는 27.3% 오른 140만 3000대가 판매됐다. 하이브리드차(HEV)도 18.4% 증가해 272만 1000대가 팔렸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